



차승원 김성균 이광수

차승원-김성균-이광수 물 만났다 ‘싱크홀’서 재난상황 웃픈 현실 코믹연기로 승화

배우 차승원과 김성균, 이광수가 개성 뚜렷한 캐릭터로 재능을 발휘하며 주연작의 흥행 청신호를 기대하고 있다. 11일 개봉하는 영화 ‘싱크홀’(제작 더타워픽처스)의 주연인 이들은 코믹 감성으로 재난상황에 처한 도시민들의 ‘웃픈’ 현실도 드러낸다.

‘싱크홀’은 11년 만에 변두리의 빌라 한 칸을 ‘내 집’으로 마련한 회사원(김성균), 그와 매사 티격태격하는 이웃 주민(차승원) 그리고 회사의 직장 동료(이광수) 등이 지하 500m 깊이의 땅속에 갇힌 뒤 탈출하려 분투하는 이야기다.

세 배우는 빌라 건물이 순식간에 싱크홀로 빠져들기 전까지 코믹한 캐릭터로 아웅다웅하며 웃음을 안긴다. 이미 코믹 연기에 일가견이 있는 만큼 웃음으로 캐릭터 친근감을 더한다.

재난의 상황에 놓여서는 위기 속에서 탈출하려 애쓰며 현실도 그린다. ‘내 집’ 마련의 힘겨움, 원룸에 살며 빠듯한 월급으로 결혼은커녕 제 한 몸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 청춘의 고단함, 소박한 일상을 이어가기에 팍팍한 살림살이 등이다. 배우들의 전반부 코믹 연기가 재난상황 속에서 서로를 보듬으며 함께 성장해가는 이야기로 흘러가면서 현실감을 더한다. 김성균은 자신의 캐릭터가 “우리 시대에 쉽게 볼 수 있는 인물이다. 그만큼 보통의 인물이라서 평범한 가정의 면모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런 현실감 위에서 이들은 영화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관객에게 안겨주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차승원은 “여러모로 오랜 시간 정말 엄중하고 지루한, 위험한 이 시기에 마음의 시름과 무거운 짐을 작게나마 털어드릴 수 있고 해소시킬 수 있는 영화다”고 소개했다. 연출자 김지훈 감독도 “인간적이고 희망적인, 또 관객에게 유쾌함을 선사하려 한다”면서 “각 캐릭터의 밀도가 높다”며 배우들과 그려낸 앙상블을 자부했다.

한편 차승원과 이광수는 6일 KBS 1TV 토크쇼 ‘아침마당’에 출연해 ‘싱크홀’ 촬영 뒷이야기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눈길을 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한국영화 ‘여름 기대작’ 잇따른 개봉

‘모가디슈’는 신호탄…코로나에도 명작은 봐야지

개봉 7일 만에 100만 관객 돌파
입소문에 역주행…관객 증가세
11일 ‘싱크홀’ 18일 ‘인질’ 개봉
영업제한 불구 관객 기대감 증가

영화 ‘모가디슈’가 1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올해 한국영화 최고 흥행작이 됐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관객이 영화를 찾고 있어 향후 추이는 물론 ‘싱크홀’ ‘인질’ 등 개봉을 앞둔 또 다른 기대작의 흥행 여부에도 관심을 갖게 한다. 이와 관련해 네 편의 기대작이 잇달아 개봉해 시장을 키웠던 지난해 여름 시즌과 비교하는 시선도 나온다. 하지만 단순비교만으로는 올해 기대작들의 관객 동원력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흥행 역주행…입소문의 힘

‘모가디슈’(감독 류승완·제작 외유내강)는 3일 현재까지 전국 누적 103만 5000여(이하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관객을 불러 모았다. 7월28일 개봉 이후 7일 만이다. 6월23일 개봉해 95만여명이 관람한 ‘발신제한’을 제치고 올해 한국영화 흥행 1위에 올랐다. 올해 전체 박스오피스 순위로는 7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상영 1주차 평일보다 2주차에 더 많은 관객을 모으고 있다는 점이다. 개봉 첫날 12만여명에서 시작해 둘째 날인 7월29일 8만 9000여명, 금요일인 30일 10만8000여명이었던 하루 관객수가 2주차에 접어들어 2일(월요일)에는 12만5000여명, 화요일인 3일에는 12만1000여명으로 각각 늘어났다.

영화계와 극장가에서는 관객 입소문의 힘을 요인으로 꼽는다. 멀티플렉스 극장 체인 CJ CGV의 황재현 커뮤니케이션팀장은 4일 “실제 관객 평가지수인 OGV 골드에 그지수가 ‘모가디슈’의 경우 개봉 초반 96%에서 97%로 높아졌다”면서 “상영일수를 더해가면서 대체로 지수가 낮아지는 현상과는 다른 ‘역주행’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상영 2주차 주말인 8일까지 첫 주보다 더 많은 관객이 ‘모가디슈’를 관람한다면, 일명 ‘개싸라기 흥행’의 또 다른 기록을 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0만 관객을 모은 ‘모가디슈’에 이어 여름 기대작으로 꼽히는 ‘싱크홀’과 ‘인질’(위쪽 사진부터)이 각각 11일과 18일 개봉하면서 극장가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사진제공 | 롯데엔터테인먼트·쇼박스·NEW

1991년 아프리카 소말리아 내전 위기에 고립된 남북한 대사관 직원들의 탈출기인 ‘모가디슈’는 특히 30대 이상 연령층 관객까지 끌어들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투자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 유진아 팀장은 4일 “역동적 스케일과 볼거리

등도 풍부해 다양한 연령층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본다”면서 “이후 n차(반복) 관람에 대한 기대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쩌면 작년 여름시즌보다 낫다?

‘모가디슈’는 이처럼 올해 여름시즌

극장가의 기대작으로 꼽혀왔다. 11일 개봉하는 ‘싱크홀’과 18일 선보이는 ‘인질’ 역시 같은 선상에서 영화계와 극장가의 기대감을 모은다.

이런 상황은 지난해 여름시즌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지난해 6월24일 ‘#살아있다’를 시작으로 7월15일 ‘반도’, 7월29일 ‘강철비2:정상회담’, 8월5일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등 기대작이 잇달아 개봉해 일정한 흥행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에 따라 당시 상황과 올해 여름시장을 비교해 분석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올해 전체 극장 관객이 줄어들면서 기대작의 관객 동원력에 대한 다소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온다.

하지만 영화계 안팎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놓인 것은 같지만, 올해에는 4일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등으로 영화 상영 환경이 지난해보다 더욱 열악해졌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기대작들의 흥행 가능성을 점친다. 전국 571개 극장의 절반가량인 261개가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몰린 상황에 거리두기 조치로 수도권에서는 밤 10시 극장 문을 닫아야 한다는 상황에서 ‘모가디슈’의 흥행 추이는 오히려 지난해 못지않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실제로 ‘모가디슈’의 상영횟수는 이 같은 제한으로 지난해 네 편의 개봉 7일째까지 수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살아있다’는 5만4800여회, ‘반도’ 8만4700여회, ‘강철비2:정상회담’ 6만3500여회,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는 7만1800여회였다. ‘모가디슈’는 4만8000여회이다. OGV 황재현 팀장은 “밤 10시 영업 제한 조치로 전체 관객수가 20%가량 줄어들고 상영횟수 역시 적다”면서 “각각 평일인 지난해 8월3·4일 극장 관객수가 19만명대였던 데 반해 오히려 올해 같은 시기에는 20만명을 넘어섰다. ‘모가디슈’가 관객 흐름을 견인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만큼 ‘모가디슈’의 실질적인 흥행력을 방증하는 셈이다. ‘싱크홀’과 ‘인질’ 등 신규 개봉작이 이에 합류한다면 올해 여름시즌은 감염병 사태라는 제약 속에서도 지난해 못지않게 시장의 규모를 키울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여기서 나온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이제는 암 죽을병이 아닙니다. 반드시 치유가 됩니다

면역력을 높여주는 온열NK면역돌 개발로 말기암, 코로나19, 희귀성 난치병, 자연치유가 된다.

대학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말기암 면역력을 높여 단기간에 치유받고 완치 판정 받으면 믿음이 안 가지시지요? 그러나 치유되고 있습니다. 간 말기암. 한달도 못산다는 환자 20일만에 간 재생. 놀라운 일이지요? 정답은 온열NK면역돌입니다.

환우 여러분! 망서리지 마세요. 암 치유에 이보다 확실한 치유방법은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정부에 암, 코로나19 치유되는 면역돌 개발하였으니 코로나19 중증환자 임상해 볼 것을 여러차례 다 방면으로 건의했지만, 제안심사 불가라고 거절하니 한심한 일. 암 5년생존율 35%. 고통끝에 죽어가는 암 환자 65%. 정부가 암, 코로나19 임상해보면 간단한 일인데 무시. 파대광고가 아닙니다. 홈페이지에서 치유영상을 보세요.

온열NK면역돌은 현대의학 어떠한 의료장비보다 특별함이 있습니다.

면역돌은 암 환자 입소시 말하지 않아도 즉각 반응하여 암 세포를 찾아낸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대학병원은 전문의사가 자료를 면밀히 검토, 암을 판명하고 미세한 암세포는 찾지 못하지만 면역돌은 찾아 낸다.

- 1) 오랜 연구끝에 세계 최초 원적외선 온열NK면역돌 개발로 체온을 높여 면역력을 400%~500% 상승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 2) 면역력이 상승되는 온열NK면역돌과 암세포를 끝까지 표적 사멸시키는 슈퍼훈증 개발은 이 시대의 새로운 혁신이다.
- 3) 암은 100% 저체온에서 발생하며 저체온일수록 암세포는 활동력이 강력해져 정상세포를 무차별 공격으로 사멸 시킨다.
- 4) 반대로 정상세포는 열에 강해 체온이 높아질수록 면역력은 더욱 강력해져 암세포를 무차별 공격 사멸 시킨다.

암 치유 핵심은 전신온열과 부분온열을 하면 단기간에 완치 된다.

1) 전신온열 : 온열NK면역돌은 몸 전체를 동시에 38.5℃~43℃ 상승시켜 암세포가 이동을 못 하고 활동이 정지되며 암세포가 사멸되기 시작하고 환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통증이 6 ~ 10일이면 사라지면서 식사도 잘하고 차츰 회복되기 시작한다. NK면역돌은 원적외선이 우리 몸속 70mm이상 침투하여 열 분해작용으로 체온을 높이면 면역력이 400%~500% 이상 상승되어 열에 약한 암세포는 사멸하기 시작한다.

수술 후 면역력 상승으로 전이 재발도 안되며 단기간에 빠른 치유 효과를 본다.

2) 부분요법 : 온열NK면역돌을 하고 난 다음 체온이 상승 된 상태에서 슈퍼훈증으로 암세포가 있는 장기에 쑥열을 40℃ 이상 가열해 암세포만 끝까지 표적 사멸시키며 장기에 있는 독소까지도 배출시킨다.

면역력만이 살 길. 체온 1℃의 기적 온열NK면역돌이 여러분의 건강지킴이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https://면역력.한국> 에서 치유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